

경북도, 골목상권·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지원

지역상품권 6430억 집중판매... 소규모 장보기·배달서비스

소비진작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움 시장 출입구·화장실 등 방역 강화 온라인 채널 등 판로확대 앞장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소득감소로 생업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소비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양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8일 밝혔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목표 1조 원 중 6430억원을 설 명절 기간에 집중 판매하여 소비진작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한 10% 할인 홍보 및 이용 캠페인 추진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어 배송서비스(택배) 및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상인들의 특산물 비대면 판매를 위하여 판로지원에 앞장서

고 있다. 또한 도청 실과, 유관기관별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전 구입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한 5인 미만 형태로 참여인원을 소규모 단위로 하여 전통시장 소규모 장보기를 실시한다. 현재, 문경 중앙시장에서 '네이버밴드'를 이용한 배송서비스를 포함 큰동해시장에서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한 배송서비스를 지원한다. 포항 효자시장

등 7개시군 7개시장에서는 콜센터를 통한 배송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 팔도시장', '가치샵시다', '온누리 전통시장'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전 10일간(2.1~2.10) 전통시장 집중 방역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약 200

여개의 자율방역단과 400여명의 클린안심방역단이 힘을 모아 2~3일 간격으로 시장 주출입구와 고객쉼터,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상인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홍보방송을 매일 실시하고 시장 주요 출입구를 비롯한 시장통로, 화장실 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상인들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강조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설 명절 연휴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판매·홍보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없도록 전통시장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전통시장도 이에 발맞추어 배송서비스와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안동시-환경공단 명절선물 과대포장 점검

안동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제품 과대포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공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명절 선물세트 중심을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 포장규격에 따른 포장횟수(품목별 1차~2차 이내) 및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15% 이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 성적서를 받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유튜브로 주요시책 살펴보세요” 순창군, 코레일 연계 지역관광상품 개발

전북도 기업지원과 유튜브 채널 개설 6개분야·107개 지원 사업 내용 담아

전라북도가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상황에서 비대면 홍보에 더욱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8일 도내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02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매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군 순회 설명회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유튜브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홍보영상에는 ▲자금 ▲창업 ▲기술 ▲인력·고용 ▲수출·판로 ▲친기업 환경조성 등을 한해 6개 분야 107개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시책을 담았다. 전북도는 홍보영상과 함께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를 책자로 제작해 시·군, 기업지원 관련 기관에 배부하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특히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유튜브 채널 개설로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홍보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지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

3월부터 새로운 관광상품 출시 순창군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군은 최근 코레일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장영철)와 순창군청 2층 영산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광주전남본부 장영철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철도 관광상품 개발 ▲관광지 교통편의 제공 ▲관광상품 공동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순창을 찾은 관광객이 급감해 관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협약식.

내 관광업계와 농촌 체험농가가 직격탄을 맞아 올해 새롭게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공동으로 농촌체험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올해 3월부터 코레일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순창(전북)=강성대 기자

광주시-조달청 창업·벤처기업 지원 맞손

광주광역시와 조달청이 지역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용섭 시장은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정우 조달청장과 '혁신조달 성과 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조달청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내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과 판로 지원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및 실증 지원 우수 창업·벤처기업 상품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특히 광주시가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지원 및 벤처창업 조달 상품 심사·지정, 창업·벤처기업 전용 상품몰 '벤처나라' 운영, 벤처창업조달 상품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광양제철소 67FC, 12년간 지역여고 후원 (축구동호회)

장학금·회식비 지원 등 남몰래 후원 광양제철소 축구동호회 67FC가 광양여자고등학교 여자축구부를 남몰래 후원해온 사실이 전해져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만든 축구동호회 67FC는 2009년 지역 인근의 광양여고 축구부 훈련 환경의 열악한 상황을 접해 12년째 인연을 맺고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67FC는 형편이 어려운 축구부 학생들도 걱정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교 3년간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주기적으로 친선경기를 가져 실전 감각을 길러왔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기 전날에는 회식비를 지원하며 응원했다.



광양제철소 축구동호회 67FC와 광양여고 축구부 학생들이 지난해 친선경기 전후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지난해부터는 광양제철소 협력사인 서희건설도 67FC의 '키다리 아저씨' 행보에 동참했다. 트레이닝복, 유니폼 등 운동용품 구매하는 데 필요한 축구부 운영비를 매년 1000여만 원 지원하며 광양여고 축구부를 응원하고 있다. /광양(전남)=김용환 기자 jijacecom@

부산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

예산 300~700만원 사업계획서 접수 부산시는 마을공동체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자율형·맞춤형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마을공동체 스스로가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형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며 총사업비는 2억원이다. 공모대상은 마을공동체의 안전, 문화, 복지, 환경, 경제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청년·주민·단체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라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으며 공동체당 300만~500만원(최대 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15일부터 26일까지 소재지 구·군 소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후 3월 중 대면평가와 4월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공동체가 희망하는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컨설팅단은 사업추진 과정, 행정절차, 보조금 집행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해 공동체의 진입장벽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영양군 축산물 유통 특별점검

영양군은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오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관내 20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설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특수상황을 고려해 판매업자 스스로 매장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올려 공무원과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에 이상 유무를 확인받는 비대면 방식과 문제가 발견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대면 방식이 병행되어 실시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